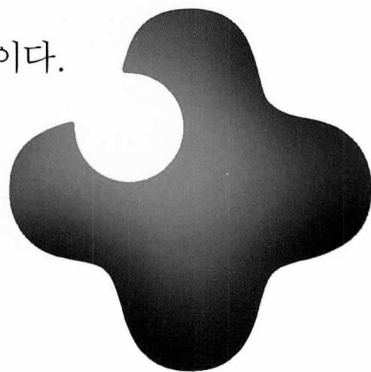


꿈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

이룸이앤비 Education & Books

꿈을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하는 동료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 같다. 곁에서 도와주며,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잘 이해해주는 동료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 이런 동료를 닮은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가 있다. 바로 '이룸이앤비'이다.



석촌호수 근처에 자리한 '이룸이앤비' (공동대표 이 동준 · 정재현, www.erimenb.com)는 얼마 후 출간 되는 학습 참고서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출판사를 찾은 날에도 사무실 곳곳에서 책상 곁 이 머리를 묻고 교정을 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마치 수험생 같은 그들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교재의 숨은 매력을 찾는다

'이룸이앤비'라는 사명은 우리말의 '이루다'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 법인데, 그 힘겨운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룸이앤비' 사람들은 500g 남짓 하는 교재에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 부는다. 자신들이 만든 책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들은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독자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교재에 숨어 있는 매력이며, 또한 역할이라고 말한다.

(주)이룸이앤비는 2002년 처음 문을 열고, 고등학교 수능교재출판을 시작했다. 2003년 3월 언어독해 노트 시리즈 출간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에는 '외국어 독해노트 시리즈', '기출문제로 엮은 비문학 종합편' 등을 출판해 오다, 2004년 전국 상위클래스 학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오르비스 유틸무스'와 계약을 맺고, 당해 11월부터 '2005학년도 수능교재'와 '숨마쿰라우테 시리즈'를 출간해 오고 있다. 아직도 이 시리즈는 진행 중에 있으며, 완성도가 높아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어려운 교재출판 환경, 새 시장 창출로 극복

출판업계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린다는 교재 출간도 실상을 그렇지 않다. 물론 인문서적이거나, 기타 전공서적에 비한다면 사정은 낫겠지만, 매년 바뀌는 교



㈜이룸이앤비 사람들

육정책, 출판사들의 과다한 경쟁, 교재 제작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공력, 운전을 통해 인쇄하는 교재출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출판사는 수익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진 대부분의 교재 출판의 이야기다. 이룸이앤비는 이런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가 강했죠. 남들이 다 하는 출판으로는 신생업체로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교재의 고급화를 선언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서적을 찾는 독자들이 많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숨어 있던 독자들이 상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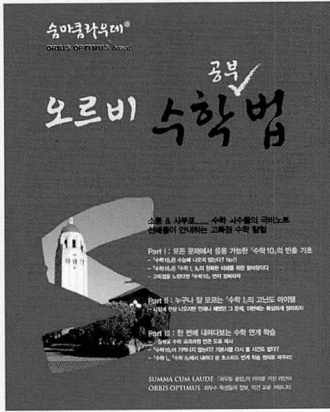
이룸이앤비는 그동안 적당한 수준의 교재들이 적당히 유통되는 교재시장에 탈피해 새로운 피치마켓을 창출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책의 독자층을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그룹인 중위권과 최상위권으로 잡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그들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갈

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진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결과 ‘오르비스 옵티무스’라는 엘리트그룹과 계약을 하게 됐다.

이룸이앤비는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수준에 맞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필진들에게 전했고, 필자들 역시 그런 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위권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서적을 저술했다. 이렇게 받은 원고는 최대한 살리되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언어 독해 노트’, ‘외국어 리딩노트’와 최상위층 학생들을 위한 ‘숨마쿰 라우데’였다.

그와 함께 교재 자체의 완성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뒷장이 비치지 않는 종이,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종이를 선택하려고 했고, 무거운 교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되도록이면 가벼운 종이를 선택했다. 이 밖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은 구성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꼭 필요한 만큼의 설명만으로 속도감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재 고급화를 위해서 표지에 신경

이룸이앤비 에서 출간되는 서적들



오르비 수학法 수학을 잘하는 핵심 노하우와 고교 수학 전체의 연계 학습 노트를 공개한다.

숨마쿰라우데는 '최상위권을 위한 학습교재 프로젝트'를 말한다.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사회 과목



을 많이 썼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수험생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시 집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룸이앤비는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거친 종이를 표지로 선택하거나, 썬멀 라미네이팅을 통해서 책에 볼륨을 주는 등 기존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급인쇄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 때문일까. 기존 교재에서 따분함을 느꼈던 학생들에게 '이룸이앤비'는 뭔가 다른 출판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좋은 교재를 만드는 것 = 믿음을 지키는 일

현재 이룸이앤비에서 출간되는 문제집은 '수능예상문제집', '언어영역 기본편', '언어독해노트', '조동기 언어 독해법', '외국어 리딩노트', '수능 기출문제집', '미래로 파이널' 이라는 시리즈물이 있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습교재인 '숨마쿰 라우데'가 있다. 이들 교재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쉽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신 인쇄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책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뜻 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도 같다. 양질의 도서를 만들면서 기존 서적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나 이동진 대표는 말한다. "좋은 교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윤보다는 이름 있는 출판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서적을 구입하는 독자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룸이앤비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이동준 대표이사

큰 안목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

교재출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출판사를 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목표를 하나 정한 것이었죠. 그래서였는지, 그 당시 출판사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를 배운다는 의미가 컸었죠. 몇 차례 출판사를 옮기면서 편집일 외에 디자인, 인쇄, 기획, 영업, 유통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나마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출판사에서 일한지 10여년이 좀 넘었을 때였을까요? '이제 나도 출판사를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재출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전 회사가 커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룸이앤비 직원들은 물론이고, 거래처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들의 애쓴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그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 좋은 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런 좋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교재출판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시간에 쫓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방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교재는 대부분 윤전인쇄를 통해서 인쇄하게 되는데, 윤전인쇄는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지만, 일정량 이상 판매되어야만 원가를 상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엽인쇄의 경우 1천권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윤전인쇄의 경우는 만권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서적을 팔아야 하다 보니 박리다매로 유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짧아 연말에 쏟아져 들어오는 반품 서적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죠. 이는 대부분의 교재출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용어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폭넓게 보고 방향을 정하되, 작은 부분에서 부터 손을 쓰라'는 뜻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가 가슴에 와 닿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일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